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구조체적 접근 및 역할이 배제된 것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Furniture Appearing in Contemporary Indoor Space

- Focusing on the exclusion of a structural approach and role -

김현범* / Kim, Hyun-Beom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Indoor space becomes limited by each factor engirdling and defining infinite empty space. Those factors appear as physical ones called wall, floor, and ceiling, and earn existential value as a living space by placing furniture in the space organized in this way.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a clear harmony between the space and furniture. Since long ago, a great deal of effort has been put into creating a relational harmony between the space and furniture. This study is to be unfolded by assuming that spatial furniture comes amid these efforts. Namely, furniture does not exist as a separate entity in a space but interacts with the construction; thus, furniture is immersed into construction or construction becomes furniture, which demonstrates that furniture is on the continuum of the composition of the space. This study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furniture in contemporary indoor space through relevant cases, and prepares the ground for a creative interpretation of indoor space.

키워드 : 현대 실내공간, 공간적 가구, 구조체적 접근의 배제

Keywords : Contemporary indoor space, Spatial furniture, The exclusion of a structural approach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실내공간은 인간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이며 구체적 공간이다. 특히 오늘날의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바닥, 벽, 천정의 기본요소들을 바탕으로 점차 유동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공간은 마감재, 조명, 가구, 장식물 등에 의해 좀 더 다양하고 충실한 공간으로 태어난다.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조형적 관점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 가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벽, 천정으로 인해 공간이 구성되면 그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도 또한 가구이다. 이처럼 가구는 공간구성의 연속선상에서 인간의 행위를 수용하며 공간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성된 공간을 충실하게 만족시키는 가구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설혹 그러한 가구를 찾았다 하더라도 공간에서 정말 명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결

합된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공간과 가구의 관계로 인해 많은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공간에 그들이 디자인한 가구를 놓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오래 전부터 공간과 가구가 일체화된 가구를 디자인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나온 것이 공간적 가구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즉 공간과 가구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 사고하여 굳이 별도의 가구를 놓지 않아도 공간과 가구의 기능이 결합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좁고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 위해 공간적 가구가 공간과 가구의 한 트렌드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과 가구가 일체화 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실내 공간에서 공간적 가구의 사례들을 통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통하여 새롭게 가구와 공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정립하면서 실내공간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로 나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늘 수 있으며 수직적 요소로는 기둥과 벽 그리고 이동요소로 계단을 들 수 있고, 수평적 요소로는 바닥, 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실내공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현대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가구의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1차적 공간 구성요소들과의 결합이 필수 불가결하며, 여기서 공간 구성요소와 공간적 가구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공간의 기능성과 조형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¹⁾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가구가 현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으로 한정한다. 또한 연구의 사례선정은 실내공간의 구성요소인 벽, 기둥 계단, 바닥, 천장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가구의 구조체적 접근 및 역할이 배제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 선정된 공간적 가구를 통해서 공간 구축요소와 가구의 관계성을 알아본다. 연구의 방법은 공간적 가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가구의 모습에서 추출한 특성인 형태성, 기능성, 가변성으로 분석하고 각 성향의 정도를 많음(●), 보통(◎), 적음(○), 없음(x)의 기준으로 나타낸다. 또한 각 사례의 공간적 가구에서 형태성, 기능성, 가변성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성과 공간과 가구의 결합이 구축요소와의 관계에 대해 상기한 4가지 기준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상기한 분석 틀을 통한 분석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으로 현대 실내 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가구의 특성을 알아보고 실내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나은 실내공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공간적 가구의 이론적 고찰

2.1. 공간적 가구의 정의

일반적으로 가구의 말뜻은 고정적인 공간에 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서 각방이나 실내를 장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내에 설치하는 가구류의 총칭으로 한문으로는 가구(家具)나 가화(家化)로서, 영어의 furniture(지급품, 공급품)는 원래 집에 갖추어진 것이란 뜻이고, 불어의 Moble은 가동적(可動的)이란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家具)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의 권위와 생활의 필수적 행동을 위해 매스라는 형태를 가지고 실내외에 항상 장식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여 그 매스의 모양을 시대의 사조에 맞추어 변형해 온 것이다. 이처럼 가구는 형태적인 변화 속에서 공간적인 변화가 인식되어 지고, 가구가 차지하는 기본공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효율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가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공간적 가구는 건축요소와 일체화된 조형적 구조물로서 공간의 쓰임을 향상시켜 주면서 실내에

서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을 포함하는 또 다른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²⁾ 가구는 실내공간 속에 놓이는 개념이 대부분이었으나, 공간적 가구는 바닥에 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진 공간 속의 벽을 이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가구로 전환되고 있다. 구아쓰미 씨게일은 이를 고정식 가구라 표현하고 실내를 구성하는 1차적 건축요소, 바닥과 벽, 천장, 기둥 등의 요소와 결합되어 건축화된 가구를 뜻한다고 하였다. 고정식 가구와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흔히 붙박이 가구라고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축적 요소와 일체화된 가구를 뜻하는 고정식 가구는 한편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기성가구와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2. 공간적 가구의 유형

공간적 가구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한 대표적 건축가로 르 꼬르뷔제를 들 수 있다. 르 꼬르뷔제는 벽체 안에 수납시설을 짜 넣는 방식으로, 혹은 벽이나 기둥과 같은 건축요소에 가구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내공간에서 이동식 가구의 수를 줄여 공간의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생적으로 청결한 실내, 활동하기에 편안한 실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공간적 가구는 합리적, 조형적, 위생적 관점에서의 3가지 유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³⁾

<표 1> 공간적 가구의 3가지 유형

합리적	실내의 사용을 원활히 하는 도구로서의 가구 본연의 역할
	수납, 정리, 휴식, 작업등의 가구가 갖는 대부분 기능을 수용
	쓸모없는 공간의 낭비를 줄여 편안한 활동영역을 보장
조형적	보조적 또는 자립적으로 부드러운 공간 분할의 역할
	건축적 요소와 함께 실내의 형태를 구성
	실내공간의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
위생적	형태요소로서 실내의 조형적 풍성한 공간 창출
	또 다른 가구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출
위생적	이동식 가구의 수를 줄여 정갈한 실내
	이동식 가구의 구성을 추방하여 청결함 유지

다시 말해서 공간적 가구는 쓸모없는 공간을 파생시키지 않아 공간의 낭비를 줄여주며, 이동식 가구가 차지하던 면적을 줄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준다. 또한 공간적 가구는 실내공간의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해주고, 나아가 그 자체가 실내를 꾸미는 조형적 요소로서 공간을 풍성하게 해주며, 이동식 가구로 인해 파생되는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많은 건축가들이 그들의 공간에 이동식 가구가 아닌 공간적 가구를 도입함으로서 좀 더 나은 공간 만들기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금의 우리 현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1) 송미선, 구축요소와 가구의 관계 설정을 통한 실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p.17

2) 김용립, 구아쓰미 씨게일의 고정식 가구에 관한 연구, 2000, pp.1-2

3) 상계서, pp.2-4, 인용

있다. 또한 오늘날의 공간적 가구는 가구로서의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형적 형태로서의 역할과 위생적 역할, 그리고 자립적 요소로서 공간분할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며, 고정식의 성향과 함께 그 역할의 가변적 성향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간적 가구 또한 고정식의 성향을 지니지만 구조적 접근이 배제된 역할의 가변적 성향의 공간적 가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3. 실내공간과 공간적 가구

3.1. 근·현대에 있어서의 공간적 가구

공간적 가구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서의 공간적 가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의 제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건축의 아름다움을 건축물의 순수한 형태에서 찾고자 하였던 근대 건축가들에게 공간적 가구는 실내에 놓이게 되는 가구의 수를 줄여 순수한 건축공간을 보게 하는 조형적 방편으로, 쓸모없는 공간을 발생시키지 않는 합리적 가구로 받아들여졌다.⁴⁾ 공간에서 가구, 구조 등의 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단순한 공간을 추구하던 근대 건축가들에게 그 이상을 실현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게 된 것이다. 공간적 가구는 근대 건축의 실내에서 그것의 의미와 역할을 이어받는다. 공간적 가구는 건축요소에 의해 정의되는 실내를 꾸밈없이 보여주기 위해, 활동하기 편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며 쓸모없는 구석을 남기지 않는 합리적 가구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공간적 가구를 형태 요소로 보았던 르 꼬르뷔제의 시각의 영향으로 공간적 가구가 실내공간에서 조형요소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렇게 출발한 공간적 가구는 시대적 사조와 개념의 확장, 수많은 요소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그 주제 또한 점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는 건축가보다 디자이너들의 비중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근대에서 현대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디자인이 발전하고 디자이너들이 대두되면서 디자인의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건축, 예술 등, 디자인이 필요한 전 분야에서 점점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최근에는 각각 영역의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처럼 영역 혹은 역할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은 21세기 디자인의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건축과 공간, 가구와 공간, 공간과 가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물리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의미가 중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건축가들의 공간 구성요소와의 결

합성을 가진 공간적 가구에서 발전되어 현대 디자이너들의 가구에서 보여 지는 공간성은 공간적 가구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서 현대로의 공간적 가구의 변화를 주목하고, 그러한 확장된 개념 또한 포함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간적 가구는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가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바이다.

3.2. 현대 실내공간의 공간적 가구와 특성

공간에서 가구는 건물과 인간사이의 매개물의 역할을 하여 인간에게 사용되어진다. 또 인간은 가구를 통하여 공간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좀 더 효율적이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⁵⁾ 따라서 가구는 실내공간에서 인간과 건축을 연결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적 가구의 필요성은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가구를 인테리어의 마감재가 아닌 설계 시 가구의 형태를 동시에 계획하고 그것을 공간의 효율적인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실내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가구의 개념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개성과 생활의 향상은 가구의 개념을 공간 속에서 놓이는 모습에서 실내공간과 아주 밀접한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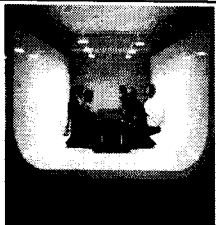


공간과 가구의 관계에서 각각 본연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기능성, 형태성, 유기성, 색채, 마감 등이 있고, 가구만의 특성으로는 이동성, 고정성, 가변성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공간만의 특성으로는 목적성, 위계성, 방향성, 장소성, 상징적, 심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과 가구의 관계성에서 공간이 가구가 되고 가구가 다시 공간이 되는 공간적 가구는 공간과 가구가 가진 본연의 특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 특성과 각각의 특성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구축요소와의 관계라는 점이다. 구축요소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공간적 가구로서의 의미가 미약해 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공간적 가구의 확장된 개념은 구축요소와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 독립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공간적 가구의 개념적 변화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4)상계서, p.3,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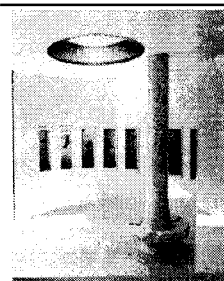

5)송미선, 전계서, pp.13-15, 인용

4.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 사례분석

현대 실내공간의 공간적 가구의 특성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틀을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공간적 가구의 공간·가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과 그 특성 아래 각각의 성향이 나타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례분석표를 만들고자 한다. 그 표를 바탕으로 특성의 상관관계정도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W.& L.T. Shop Concept 1996 (A)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Bsquare Hong Kong 1996 (B)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Bartle Bogle Hegarty 1999 (C)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Beacon Communications 2002 (D)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Bisazza New York 2003 (E)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각각 성향의 정도 - 많음(●), 보통(●), 적음(○), 없음(X)

Orihca 2003 (F)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Boufique Y's 2003 (G)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Mellin/Pot New York 2006 (H)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Azzedine Alaïa Boutique 2006 (I)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Stuart Weitzman Roma 2006 (J)			
	형태성	공간적 형태	●
		가구적 형태	●
기능성	공간적 기능	공간적 기능	●
		가구적 기능	●
가변성	고정적 성향	고정적 성향	●
		이동적 성향	X
공 간 성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각각 성향의 정도 - 많음(●), 보통(●), 적음(○), 없음(X)

현대 실내공간의 공간적 가구에서 구축요소와의 관계에 있어 구조체적 접근 및 역할이 배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와의 결합을 통해서 공간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공간의 형태 아래에서 가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동식 가구를 공간에 놓았을 때에 비

해, 공간적 가구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성이 보다 높은 공간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구축요소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이동적 성향 보다는 고정적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 대부분의 공간적 가구에서 보여 지는 모습은 수직적 요소와의 결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을 규정 짓는 벽, 바닥, 천정 각각의 요소들에서 벽과 기둥에 나타나는 공간적 가구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구축요소 위에 레이어가 중첩되듯이 수직적 요소와 가구의 결합을 통해서 텅 빈 공간을 가득 찬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 요소인 바닥과 천정에서는 수직적 요소와 결합된 공간적 가구들이 연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와의 결합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현대 디자인에서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지고, 이로 인해서 각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의미가 중첩되어 가는 경향과 매우 닮아 있다. 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고 각각의 의미가 다르지만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공간과 가구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개체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현재는 더욱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공간적 가구의 3가지 유형인 합리적, 조형적, 위생적 3가지 관점 또한 시대와 디자인의 흐름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하나로 통합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지금까지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가구와 그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구가 공간 구성에서 설치되거나 놓여지는 것이 아닌 건축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일부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향의 정도로 파악한 종합 사례분석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형태성에 있어 공간적 형태에서는 모든 사례가 성향이 확연히 두드러지며, 가구적 형태 또한 높은 성향으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기능성은 형태성과 거의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모든 사례가 어느 정도 구축요소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동적이 아닌 고정적 성향을 가지고 공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적 구조물과 하나가 된, 건축화된 가구 = 공간적 가구는 구축요소와의 결합으로 실내의 형태를 부여하며, 이동식 가구와는 달리 공간구성의 또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 종합 사례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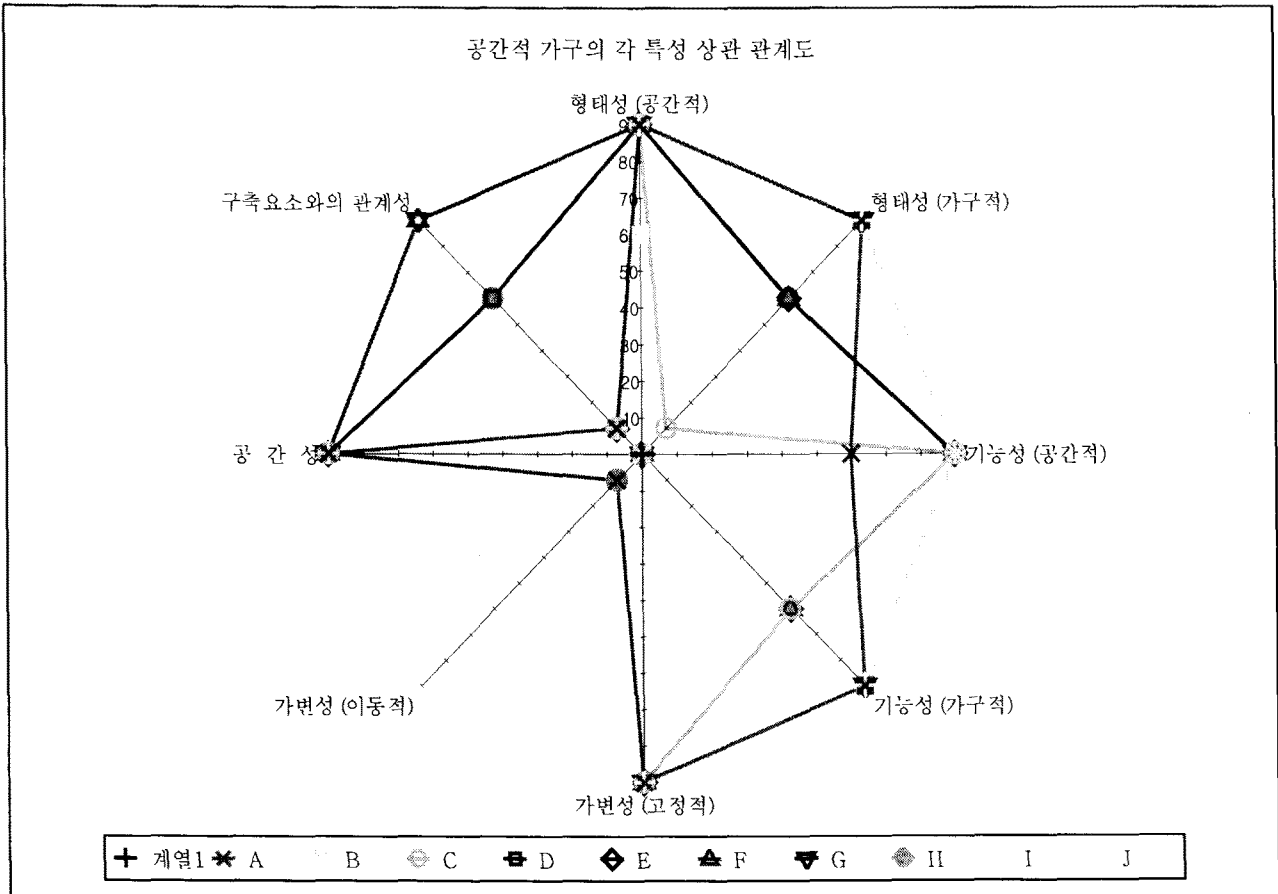
분 석 기 준		(A)	(B)	(C)	(D)	(E)	(F)	(G)	(H)	(I)	(J)
형태성	공간적 형태	●	●	●	●	●	●	●	●	●	●
	가구적 형태	●	●	○	●	●	●	●	●	●	●
기능성	공간적 기능	●	●	●	●	●	●	●	●	●	●
	가구적 기능	●	●	○	●	●	●	●	●	●	●
가변성	고정적 성향	●	●	●	●	●	●	●	●	●	●
	이동적 성향	○	X	X	X	X	X	X	○	X	X
공 간 성		●	●	●	●	●	●	●	●	●	●
구축요소와의 관계성		○	○	○	●	○	●	●	○	○	●

각각 성향의 정도 - 많음(●), 보통(○), 적음(○), 없음(X)

이것은 이동식 가구에서 나타나는 실내공간 구성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동식 가구가 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A라는 의미의 공간을 B라는 의미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과는 달리, 공간적 가구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철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그 의미와 목적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공간적 가구로 구성된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보다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된 가구를 제공한다. 또한 가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공간의 풍요로움이 이동식 가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며, 좀 더 청결한 실내공간의 유지가 가능하게 하여준다.

이처럼 실내공간에서의 공간적 가구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공간적 가구를 사용하여 실내를 구성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가구를 공간에 놓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적 가구의 사용은 실내를 구성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공간적 가구에서도 많은 변화와 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례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간적 가구의 역할에 큰 사명감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건축과 공간, 공간과 가구는 별개의 개체라기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디자인에서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디자이너들에게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에 의하여 좀 더 명확하고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 가구를 통해서 현대 실내공간과 가구의 일반적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그 차이를 해결할 방향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디딤돌을 발판 삼아 현대의 디자인이 그 경계적 모호성을 가지고 확장된 개념으로 전 분야를 넘나들 듯이,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적 가구의 특성을 통해 건축, 예술, 디자인 등의 전 분야를 넘나드는 새롭고 확장된 개념의 창의적 실내공간의 구성방식으로서 공간적 가구가 사용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림 1> 공간적 가구의 각 특성 상관관계도

사례(A-J) 각각 성향의 정도 - 많음 (● - 90), 보통 (◐ - 60), 적음 (○ - 30), 없음(X - 0)

참고문헌

1. 권영걸, 공간 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2. 가구 저널 월간 정기 간행물, (주)가구저널 2003
3. 월간 건축문화, 스페이스 퍼니처, 2003
4. 김용립, 구아쓰미 쓰게일의 업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9호, 1996
5. 김용립, 구아쓰미 쓰게일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 학술지 제4호, 1996
6. 김용립, 구아쓰미 쓰게일의 고정식 가구에 관한 연구, 2000
7. 상원배, 공간형성에 미치는 장식 및 가구의 영향에 관한 연구, 1999
8. 송미선, 구축요소와 가구의 관계 설정을 통한 실내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9. 진성경, 현대 주거공간을 위한 가변형 가구디자인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논문, 2006
10. 만찬홍 외, 실내디자인 용어사전, 서울 디자인 하우스, 1994